



잇몸뼈 재생, 가능한가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유상준 교수

이식재 주입 뼈세포 살려...4~5개월 소요

치아 지탱하는 중요 역할

염증 제거 뒤 수술해야 효과

수술 뒤 2년간 주기적 검진

잇몸뼈는 치아를 지탱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뿌리가 노출되면 찬물이나 뜨거운 물,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심하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흔들리는 치아는 음식을 씹는 기능인 저작기능을 저하시켜 영양분 섭취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잇몸뼈 흡수원인과 해결방법=잇몸뼈를 녹이는 원인으로는 풍치가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치아 뿌리의 염증, 치아 뿌리의 외흡수, 심한 치아우식증, 외상에 의한 치아 뿌리의 파절, 직접적인 외상 등이 있다.

치아뿌리의 염증에 의한 잇몸뼈 흡수는 조기에 신경치료를 시행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원인 치아를 발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잇몸질환에 의한 잇몸뼈 흡수현상은 특성상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면서 많은 양의 잇몸뼈를 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잇몸뼈가 녹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는 못한다. 게다가 잇몸질환에 의해 한번 녹아버린 잇몸뼈는 발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렵다.

최근에는 잇몸뼈가 상실돼 흔들리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잇몸뼈가 부족한 부위에서 임플란트 식립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또한 치아처럼 잇몸뼈에 의해 지탱이 되기 때문에 잇몸뼈가 약하거나, 부족한 부위에서의 임플란트 식립은 향후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잇몸뼈가 약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 잇몸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잇몸질환은 반드시 먼저 치료해야 한다.

◇잇몸뼈 재생술=잇몸뼈 재생술은 흡수되고 있는 잇몸뼈를 재생시키거나, 원 인치아를 발치한 후에도 재생되지 않은 잇몸뼈를 인위적으로 재생시키는 수술기법을 말한다.

잇몸뼈 재생의 원리는 잇몸뼈가 흡수된 부위에 이식재를 채워줌으로써 그 부위로 뼈세포가 자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잇몸뼈 이식재들과 잇몸뼈 유도막들이 개발돼 잇몸뼈 재생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유상준(왼쪽)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교수가 환자의 잇몸뼈 상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한 몸안에 있는 뼈재생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다양한 상품들로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재료들과 급속히 발달한 수술기법은 과거 잇몸뼈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에서 성공적인 잇몸뼈 재생을 돕고 있다.

◇잇몸뼈 재생술 전 진단과정=성공적인 잇몸뼈 재생을 위해서는 수술부위에 염증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증의 원인을 수술 전에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치료를 통해 원인을 제거했다면, 잇몸뼈 재생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잇몸뼈 재생을 위한 진단은 잇몸의 건강상태에서부터 잇몸뼈 흡수정도, 전신질환의 여부, 구강위생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

이러한 진단과정에서 진찰과 방사선 사진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치과용 CT 촬영기의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잇몸뼈 재생을 위한 진단이 더욱 정확해지고 있다.

◇수술 후 성공적인 관리법=성공적인

잇몸뼈 재생술 뒤 관리법

- 수술 후 2주 동안 칫솔질 대신 가글하기
- 멍이 들 경우 온습포 찜질
- 수술 후 4~5개월 동안 전문의 상담·관리
- 2년 동안 3~4개월 간격 검사·관리

잇몸뼈 재생의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이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잇몸뼈 재생의 원리는 뼈 세포가 새롭게 자라는 것인데, 뼈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이 형성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수술 후 얼굴이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어오르는 현상은 충분한 혈관이 수술부위에 형성된 다음인 수술 후 2주 내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수술부위에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치과에서 처방하는 가글링 용액을 사용해 2차 염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 여성 환자의 경우 부은 뒤 가라앉는 과정에서 멍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 후 2주부터 온습포 찜질을 하면 멍을 빨리 없앨 수 있다.

보통 2~3주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칫솔질을 시작하면 된다. 칫솔질은 향후 잇몸염증에 의한 수술부위의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수술후 통증은 심하지 않으며, 대부분 약물을 통해 개선된다. 만약 수술 2주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약물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재생술 후 잇몸뼈의 재생은 최소 4~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수술 전문의의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 잇몸뼈가 재생되더라도 재생된 잇몸뼈는 처음에는 뼈의 질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2년 내에는 3~4개월 간격으로 검사와 관리를 해야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대한고혈압학회 지원연구 선정

새 고혈압 치료제 개발 기대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질환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 기해진 연구교수의 연구과제가 2017년 제14회 대한고혈압학회 학술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대한고혈압학회는 5일 “최근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학술연구과제에서 기해진 연구교수의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 억제제를 이용한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 개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해진 연구교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고혈압학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선택적인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억제제를 사용해 고혈압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혈관수축이완 또는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기전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해진 교수

기해진 연구교수는 현재까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억제제의 고혈압·심장비대·심장섬유화에 대한 효과를 연구해 총 21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쌓아오고 있다.

이같은 연구실적으로 기해진 연구교수는 대한심장학회 젊은연구자상,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최우수연구상, 전남대학교병원 우수연구자상 등을 수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집중력 높이려? 수능 때 ADHD 처방 최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수가 대입 수능능력시험이 있는 11월께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한 꼽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ADHD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총 4만9623명(중복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이 4만909명으로 82.1%, 여성이 9533명으로 17.9%를 차지했다.

한때 연간 6만명을 넘겼던 ADHD 환자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반적인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능철인 11월에 진료가 집중되는 등 진료 및 약물 오인 가능성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사려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월별 ADHD 환자 수는

11월에만 2만5404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환자 수가 가장 적은 2월의 2만 1279명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한 일부 학부모들이 진료와 처방을 요구해 실제 처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지적과 문제가 확산하자 식약처가 ADHD는 절대 성적을 올리는 약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증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제기 때문에 정상인이 먹는다고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향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정신 질환,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코골이 심하면 성인병 발병률 남성 2.1배·여성 1.5배

1주일에 6일 넘게 수면 중 코를 고는 사람은 코를 골지 않는 사람보다 각종 성인병 발생 위험이 남성은 2.1배, 여성은 1.5배가 각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강대희 교수, 김의영 박사과정)은 “2009~2013년 사이 한국인 코호트에 등록된 성인 7만2885명을 대상으로 코골이와 대

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개 몸이 피곤할 때, 수면제나 술을 먹고 잤을 때 목젓 부위의 ‘연구개’가 느슨해지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 코를 심하게 골게 되지만 비만 때문에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해져도 코골이를 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3가 업무시설

경매물건



토지 480평 감평가 103억
건물 1503평 최저가 76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평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점
토지 18452평 감평가 140,000,000 최저가140,000,000
-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도시
토지 2746평 감평가 7,300,000,000 최저가 3,600,000,000
- ▶장흥군 관산읍 남송리 임야 관산터미널인근 2차선포장도로점
토지 6600평 감평가 50,000,000 최저가 50,000,000

공 장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일 반 물 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인근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일 반 물 건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 ▶광산구 윤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 ▶장성군 진원면 학리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